

“우리는 어린이 산불소방관”

2007년 4월 12일 서울 송덕초등학교 푸른숲선도원 40명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산불예방 체험교육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체험교육을 받은 푸른숲선도원들은 산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닫고, 산불예방을 생활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글은 송덕초등학교 박세흠 선생님의 소감문입니다.

촉촉이 봄비가 전날부터 내려서, 부푼 기대를 안고 참가하는 산림체험교육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었는데 다행히 행사를 가로막지는 않았다. 산림인력개발원으로 가는 길, 출근시간대라 막혔지만, 일찍 출발한 터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행사장소까지는 여유 있게 도착하였다. 교육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실내 강의실로 이동하여 교육이 시작되었다.

새끼도 꼬고, 버들피리도 불고

제일 먼저 김진열 산불방지훈련과 과장님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1교시 실내강의는 산림인력개발원 소개, 산불방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시청각 교육이었다. 2·3교시 산림인력개발원 본관 뒤쪽의 야외로 나가 3개조로 새끼꼬기, 우편함 만들기, 버들피리 만들기를 순환방식으로 전문가 선생님과 멋진 도우미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 각자가 직접 손으로 꼬고, 망치질하고, 만들고 입으로 불었다. 대부분 우리 어린이들은 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이라 새끼도 처음 꼬아

보았고, 망치질도 처음 하는 듯 하였다. 물론 버들피리 소리를 듣기도, 불기도 처음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비 온 뒤였지만 그곳의 맑은 공기와 따뜻한 봄기운은 또 다른 반찬이 되어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자연 속에서 꿀맛 같은 시간을 보냈다.





줄타고오르기, 손에 힘을 꽂추고~!!
꼭 오르고 말테야, 영차~!!

불사조의 신조

큰 대로에서 좁은 마을길로 한참을 올라가 드디어 산불종합훈련장 입구, 버스에서 내려 600m 정도를 비탈진 길을 기어 올라가니 산불종합훈련장이 나왔다. 산불방지훈련과 과장님의 산불방지 강의와 엄한 체력훈련, 불사조의 신조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숙련된 조교들의 절벽 외줄등반, 외줄 하강, 3줄타기, 1줄타기 시범을 보았다.



산불연기 체험실로 들어가볼까?
오~연기!그래도 기대되는 걸?

다음은 우리 차례. 손에 온 힘을 모아 절벽 외줄등반에 시도. 조교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만만해 보였는데, 친구들 모두 몇 걸음 오르지도 못해 주저앉았다. 높이 6m 가량을 무사히 힘껏 통과한 어린이는 겨우 3명, 그렇지만 3줄타기는 즐겁게 전원 통과하였다.

다음 코스는 산불열기 및 연기체험실. 연기체험실은 거의 찜질방의 최고온도보다 더 강한 수준, 그리고 방독면을 착용하고 들어간 연기체험실은 앞 친구가 안보일 정도는 연기가 가득하였다. 조별로 한목소리로 힘차게 노래한 곡 불러야 나올 수 있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코스는 산불 끄는 훈련이었다. 실제로 산에 불을 지퍼놓고 산불진화용 소방차를 동원하여 우리친구들이 직접 불을 꺼 보았다. 직접 장비를 잡아보니까 물뿌리개가 그렇게 힘이 들어갈 줄 몰랐다고 한다. 무사히 훈련 코스를 모두 마친 우리 푸른숲선도원 어린이들은 모두 불사조가 되어 불구덩이 속에서도 죽지 않는 불사조의 신조(불사조의 날개는 힘차게, 불사조의 머리는 명석하게, 불사조의 부리는 예리하게, 불사조의 발톱은 날카롭게)로 정심무장하여 산불예방에 앞장서겠노라고 굳은 의지를 다짐하면서 내려왔다.

이런 좋은 산림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송덕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해주신 한그루



녹색회, 산림인력개발원, 유한킴벌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푸른숲선도원에게 푸른숲의 소중함과 더불어 산불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글·박세흠 / 송덕초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